

한국타이어, 온실가스 배출인증 획득

BSI, 전체 사업장 대상 ... 배출권거래 기반 마련에 친환경 작업장 구축

한국타이어는 세계적인 온실가스 검증기관인 BSI(영국표준협회)코리아로부터 본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을 획득했다

이에 따라 이산화탄소(CO₂)를 비롯해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을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확하게 파악해 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하게 됐다.

서승화 한국타이어 부회장은 “배출인증을 계기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권거래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”며 “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친환경 작업장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국타이어는 2009년 보일러 연료를 청정연료인 LNG(액화천연가스)로 교체하는 사업을 통해 9600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바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6/15>